

폭염 7일만에...전남 가축 7만여마리 폐사

닭·오리·돼지 등 피해 늘어
온열질환자도 계속 발생

광주·전남지역에 7일째 이어진 가마솥 더위에 온열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폭염으로 인한 광주의 온열환자는 21명이다. 전남에서도 4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울여름 폭염으로 전남지역에서 폐사한

가축은 이날 현재 52농가, 7만4190마리에 달한다. 피해액은 3억4800만원으로 전남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에 접수된 폐사량을 집계한 것으로,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가축 폭염 피해는 3만 9000여마리였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3만 5000마리가 더 늘었다.
가축 종류별로 닭 6만8000마리(1억 7300만원), 오리 6000마리(3200만원), 돼지 190마리(1억4300만원) 등이다.

닭·오리 주산지인 나주에서 1만800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곡성(1만3000마리), 영암(1만1000마리), 해남(9000마리) 등 도 피해가 컸다.
돼지도 나주에서 55마리, 함평에서 40 마리가 폐사했다.
축산당국은 “차광막 설치·통풍 유도 등 가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라며 “아침·저녁 서늘한 때 방목을 하고, 교배·이동도 한 낮에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처럼 몸집이 큰 가축은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물을 뿌려주고 열사병 증상 등이

생기면 머리에 냉수를 끼얹고 생리 식염수, 포도당액을 주사해야 한다. 돼지·닭 등 밀집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호흡기 질병이 생길 수 있어 위생 관리와 방역도 중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히 온도 상승에 민감한 돼지·닭은 축사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비상 전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람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고령자는 가급적 축사 작업을 지양하고 특히 대낮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 뜨는 시간 05:30

해 지는 시간 19:46

달 뜨는 시간 09:57

달 지는 시간 22:59

그늘을 찾아서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보다 4~7도 높겠다.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보성

순천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축산도

22/34

24/33

25/32

22/35

23/33

23/33

23/33

22/33

22/34

22/34

25/34

25/34

23/33

23/33

24/35

23/35

23/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9	05:26
	22:38	17:35
여수	05:59	12:13
	18:11	--:--

◇주간 날씨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4/35	24/36	25/36	25/36	25/36	25/35	25/35

◇생활지수

주요

매우높음

보통

깡깡이·짬찌·화이바...
군대 은어 퇴출한다
공공언어 사용 캠페인

깡깡이(방상내피), 짬찌(신병), 화이바(헬멧), 쿠사리(면박) 등 은어가 군대에서 사라진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부적절한 언어와 어려운 행정 용어를 퇴출하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캠페인’을 연말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은어와 일본식 표현, 외래어, 권위적인 행정 용어, 낯선 한자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다른 말이나 쉬운 용어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장병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본식 용어는 고참(선임병), 구보(달리기), 시건장치(잠금장치), 각개 점호(인원 점검), 가라(가짜), 쿠사리, 소부(홍정·결판), 나라시(평탄화작업) 등이다.
화이바, 딱판(인원 현황판), 깡깡이, 각새(이발병), 짬찌(신병·이 등병) 등의 은어도 사용된다.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앞으로 이런 말을 퇴출하도록 각 군에 예하 부대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어 시방서(설명서), 이격 거리(떨어진 거리), 입수보형(주머니에 손 넣고 건다), 축수염금(손대지 마시오), 적치하다(쌓아놓다) 등의 낯선 한자어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는 “전문가를 동원해 국방분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연구해 올바른 국방 용어를 정립하고, 연말에는 ‘국방분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달아오른 아스팔트 식히는 살수차 폭염이 계속된 1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살수차가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위에 물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최근 3년 정신질환 진료 인원
전국 평균 2배, 6.4% 증가
전남은 같은 기간 1.6% 늘어

광주의 아동·청소년(18세 이하)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등 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준 전국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지난 2015년 15만 5318명에서 2017년 16만544명으로 5226명(3.3%)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2015년 4434명, 2016년 4570

명, 2017년 4719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85명(6.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2015년 4439명, 2016년 4359명, 2017년 4512명으로 3년 사이 73명(1.6%)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와 전남의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료인원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9443명)보다는 낮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는 10위, 전남 11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7개 시도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2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095명, 제주 2027명, 대전 1935명, 인천 1849명, 경기 1833명, 대구 1765명, 세종 1679명, 광주·울산 각각 1676명, 강원 1672명, 충남 1641명, 충북 1595명, 전남 1468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

로는 남자 아동·청소년이 총 31만 3175명으로 16만641명인 여자보다 1.9배(15만 2534명)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8세 16만603명, 17세 15만 819명, 16세 13만123명 순으로 정신질환 환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 분류별로는 운동과다장애(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과도한 활동이 특징인 장애)가 4만7448명, 우울에피소드(경한 우울증) 1만8313명, 틱장애 1만3138명이었으며, 최근 각종 강력범죄와 연관됐던 조현병도 1272명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2017년 한해 동안 984억의 정신질환 진료비가 지출 되는 등 정신질환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변호사회에 홍남순 변호사 흉상

변호사회관 1층에 설치
오늘 제헌절 맞아 제막식

신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기개를 잃지 않았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1912~2006)의 일침은 여전히 후배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사대의 의인’인 홍 변호사의 흉상이 변호사회관에 설치되고, 그의 뜻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고(故) 홍남순 변호사 흉상 제막식과 광주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홍 변호사 흉상을 제작했다.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동으로 만들어진 흉상은 변호사회관 1층에 설치됐다.
흉상에는 ‘광주사태 폭도 수괴’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가 지난 1980년 12월17일 육군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밝힌 최후 진술을 비롯한 약력, 취지문, 후원회원 명단



등이 새겨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3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국종돈·박승욱·방영철·오수원·이상열·조운식 회원에게 ‘변호사 30년상’을, 공익활동에 앞장선 서애련·이기석·정상문·안재훈·이용주 회원에게 우수회원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홍 변호사는 광주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1963년 공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주로 양심수 변론을 맡았다. 5·18 기간에는 시민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6년 향년 94세로 타계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썬그린에너지(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상담

1577-3093

1566-1394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